

# 기존시설 유지관리 방안 마련해야 어항 장기발전방향도 제시

金 左 基 <全南道廳 水産局長>

**수산** 업에서 어항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어항의 규모에 관계없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나라의 어항은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충당할 수 없었던 까닭에 주로 비교적 규모가 큰 지정어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 대부분의 어항 완공률은 30%에 채 못미치고 있는데 이것은 어항개발 투자가 완공 위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민의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지역 안배적으로 분산 투자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어항의 경우 기존 시설물량의 50% 안팎이 과거 주민 자력사업으로 주로 면밀한 계획성없이 축조된 것이기 때문에 어항시설이 빈약함은 물론 심지어 만조시가 아니면 어선의 입출항이 불가능한 곳이 많고, 태풍 등 기상 악화됐을 경우에는 어선의 안전정박이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하여 어민은 어민대로 끊임없이 시설확장을 요구하고, 해당 주무부서는 주무부

서대로 어민들에게 부족한 재원에 대해 이해를 구하느라 이만저만한 고충을 겪어온 게 아니다.

사실 이는 모두 그동안 정부와 어민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한국어항협회같은 단체가 없었던 데 기인하는 바 크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어항법 개정으로 한국어항협회가 출범 6년만에 법정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민이나 정부의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며 이에 거는 기대 또한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까운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어항협회가 어민과 정부사이의 중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어항발전에 크나큰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어항협회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나 우리 나라 어항발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 등을 수시로 마련하여 이를 건의하고, 협의하고, 검증해내는 협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 나라의 어항개발사업이 방

과제같은 외곽시설에만 주력하고 있음을 직시, 기존 어항시설물의 보수 유지관리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도 차제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항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거대한 위력을 지닌 바다를 상대로 해서 시설되는 구조물이기에 늘 피해발생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그만 피해라도 이를

조기 발견해 보완하지 않으면 큰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어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드높여 어항투자가 우리 나라 수산업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홍보하는 것도 협회의 또다른 중요한 역할의 하나가 될 것으로 믿는다. ㉠

## 어항인 위상 제고에 앞장설 어항발전에 더 큰 책임 부담

金生麗 <東和建设(株) 會長>

**어항** 시설의 확대, 어항시설 사업에 민간부문 참여, 어항관리기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어항법을 개정하고 시행케 된 쾌거는 어항협회가 각고의 6년만에 이룬 값진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어항건설과 발전에 관한 활동과 기술 활성화를 가져옴은 물론 협회와 어항인의 위상을 대내외에 제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 데에 무한한 경의와 근간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

어항은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영양을 공급하는 어업기반시설일 뿐 아니라 국토균형 개발과 국민 휴양 공간 창출 면에서도 그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어항법이 개정 시행케 됨에 따라 협

회는 모든 운영면에서 더 큰 책임을 진다는 결과를 의미하게 되었다.

즉 ①급속도로 변화해 가는 국제화 과학화 정보화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하는 제 문제.

②수산진흥과 어촌지역 발전에 중심지가 되어야 하는 전제아래 이에 부합하는 어항개발 촉진 및 관리기능 강화 방안.

③어항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복지시설을 포함하는 문제 등이다.

어항법이 우리들의 희망적인 욕구를 부각시켰으나 이런 희망들을 어떻게 실현 시키느냐 하는 데에는 복잡다난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기서 우리들의 기대는 모든 어항인들은 공동 운명체로서 전체를 위하여 개개인이 생사를 함께 걸고 총화단결하여 훌륭한 청사진